

Alexander Pope의 시에 반영된 이성(理性) 및 비이성(非理性)의 개념에 관하여*

송 낙 현

영문학사에 대한 논의의 편리를 위하여 영문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시대로 구분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구분된 각 시대에 붙인 이름으로는 Anglo-Saxon, Middle English 등, 그 시대에 사용된 영어의 종류, 또는 Caroline, Victorian 등, 통치한 왕이나 여왕의 이름, 또는 Romantic, Neo-Classical 등, 그 시대 사조의 특색을 나타내는 말 등이 원칙 없이 적당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구분과 명칭은 물론 인위적이며 편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선입감을 주기 쉽다. 가령 소위 Renaissance의 영문학이 1500년에 시작하여 1660년에 끝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시대에 대하여도 그 연대나 명칭에 대하여(통치왕의 명칭을 제외한다면)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그 성격에 대하여 재론이 가장 활발한 시대는 1660년을 기점으로 하여 18세기 말엽까지 계속하여, 17세기의 후반과 18세기의 대부분을 망라하는 시기이다. 이 두 시점을 전환점으로 하여 그 직전과는 각기 판이하게 다른 사조와 지적 풍토가 전개된다는 점은 거의 모든 학자가 동의하고는 있다. 그러나 거의 1세기 반에 걸친 이 시대를 지배한 사조의 성격에 관하여는 일치된 견해를 찾아 보기 힘들다. 따라서 이 시대 만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지는 시대도 없을 것이다. 우아하고 장중함을 암시하는 The Neo-Classical Period(신고전주의 시대), 또는 The Augustan Period(로마의 Augustus황제기에 맞먹는 시대)라고 부르거나 하면 한편으로는 지성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The Enlightenment(계몽기), 또는 The Age of Reason(이성의 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그 어느 이름도 18세기 영국의 지적 풍토를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되어 왔고,¹⁾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 시대가 종전에 서술된 것처럼 지성과 중용과 절제의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과다의 시대(The Age of Exuberance)라고 주장하고 있다.²⁾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본질을 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The Restoration and the 18th Century(왕정복고기 및 18세기)라는 중립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이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 이 논문은 1986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다음이 이런 점을 지적한 몇가지 예이다:

Eighteenth-Century English Literature, ed. Geoffrey Tillotson et al.,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9), pp. 1-2.

Donald Greene, "The Study of Eighteenth-Century Literature: Past, Present, and Future," *New Approaches to Eighteenth-Century Literature*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74), pp. 25-27.

2) Donald Greene은 18세기 영문학의 배경을 설명하는 그의 저서의 제목을 *The Age of Exuberance: Backgrounds to Eighteenth-Century English Literature* (New York: Random House, 1970)라 붙이고 그 이유를 Preface (pp. v-vii)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Renaissance와 Romanticism영문학의 사이에 길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의 문예 사조에는 아무 특징도 없고, 있다 해도 그것을 대략적이거나 정의할 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시대의 사조라도 단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여러 서로 충돌적인 조류들이 뒤섞여 있기 마련이다. 가령 중세 사조에도 근대적 합리주의가 영겨 있고, 소위 낭만주의 시대에도 고전에 대한 존경은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흔히 신고전주의, 또는 이성(理性)의 시대라 불리우는 18세기에도 비합리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낭만주의, 또는 반이성(反理性) 내지 비합리주의시대라 볼 수는 없고 그런 말을 찾아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 글은 영국의 왕정복고기 및 18세기를 이성의 시대(The Age of Reason)라 부르는 것이 19세기적인 편견에 기인한 터무니 없는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 명칭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잠시 살펴 본 다음 이 시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Alexander Pope가 그의 시에서 이성(理性)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봄으로써 18세기 영국 사조의 일면을 더듬어 보려는 것이다.

영국의 지적 풍토에 Charles 2세의 왕정복고와 더불어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 새로운 바람은 영국사에 보기 드문 내란과 문화의 마비를 야기시켰던 광신적인 청교도와 비타협주의자(non-conformists)의 지배에 대한 반동에 의하여 주로 시작되었다. 이들이 제각기 영감(inspiration)을 받아 신이 들었음(enthusiasm)을 내세우는 광적이고 비이성적인 주장은 양식있는 사람들에게 이성의 중요성을 더 한층 인식시키고 강조하게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조의 변화는 더 근본적으로는 16세기 말부터 유럽에 팽배하기 시작한 과학적 사고방식의 일단이라고 볼 수 있다.³⁾ 이 방식은 Aristotle과 중세 Scholastic 철학의 권위와 결별하고 실제 관찰과 측정에 바탕한 귀납적 추리를 강조했다. 이 과학정신이 주관적인 영감이나 환상에서 생기는 광신이나 미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영국에서는 Bacon이 새로운 방법론을 제창했고 Thomas Hobbes가 이성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신이나 귀신들의 탓으로 돌려왔던 여러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했다. 그후 John Locke, Addison 등도 이성에 의하여 미신을 타파할 것을 역설했다. Hobbes의 한 동시대인은 이 점에 있어서 그를 이같이 칭찬하고 있다:

(환상과 유령과 모든 공허한 그림자를
두려워하며 어두운 무지 속에 누워있을 때
위대한 홉브스 나타나 맑은 이성의 빛으로
이런 환상의 모양들을 창피해 도망치게 했다.)

While in dark ignorance we lay, afraid
Of fancies, ghosts, and every empty shade;
Great Hobbes appear'd, and by plain Reason's light
Put such fantastick forms to shameful flight.⁴⁾

3) 이같은 상황은 가령 Basil Willey, "How the Scientific Revolution of the Seventeenth Century Affected Other Branches of Thought," *The History of Science* (London: Cohen & West Ltd., 1951), pp.87-96 등에서 설명되고 있다.

4) John Sheffield, 'On Mr. Hobbes and His Writings.' quoted by James Sutherland in *A Preface to Eighteenth-Century Poetry* (London: Oxford Univ. Press, 1963), p. 2.

이성은 이와 같이 광신, 미신 및 무지로부터 인간을 광명으로 인도해 주는 계몽적 구실 때문에 찬양했을 뿐 아니라, 올바른 윤리를 알려 주고 인격을 드높혀 준다는 도덕적 지표로도 존중되었다. Edward Young에 의하면 이성의 힘은 인간을 악에서 구하여 선으로 인도하며, 인간의 야성을 억누르고 무한한 세계로 비상하는 나래를 준다는 것이었다:

(이성은 이러한 것들을 거룩한 힘으로
 뛰어 넘어, 미래와 미지를 잡으려 한다.
 방대한 미지의 세계와 깊이를 헤아리지 못할 미래를!
 위대한 영혼이 이 높이로 솟아 올라
 조잡한 천성의 찌꺼기를 아래로 할 때,
 그 때, 또 오직 그때에만, 아담의 자손은
 돌판과 숲속의 현자와 영웅 노릇을 그만두고
 그의 지위를 요구하고 인간의 자리로 오른다.)

These Reason, with an energy divine,
 O'erleaps; and claims the future and unseen;
 The vast unseen! The future fathomless!
 When the great soul buoys up to this high point,
 Leaving gross nature's sediments below;
 Then, and then only, Adam's offspring quits
 The sage and hero of the fields and woods,
 Asserts his rank, and rises into man.⁵⁾

이와 같이 이 시대에는 이성의 가치를 드높히는 소리가 뚜렷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이성
 에 대한 불신과 경시를 나타내는 소리도 흔히 볼 수 있다. Donald Greene은 이것을 Augustinianism과 empiricism의 두 가지로 대별하여 설명하면서 이 시대가 결코 이성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⁶⁾ 그에 의하면 이 시대를 지배했던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정통적인 기독교의 경건한 신자들이었고 그 신앙의 본질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와 이성으로는 신의 은총과 진리를 얻지 못하고 오로지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Augustinianism이었다. 따라서 신앙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은 보잘것 없는 것이므로 이것을 드높힌다는 것은 교만의 죄가 된다. Dryden도 이성의 빛을 종교라는 태양에서 반영되는 희미한 별이나 달빛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성은 영혼에게……달과 별의 빌려
 받은 불빛 처럼 희미하다.
 그리고 낮의 밝은 주인이 우리 반구에
 떠오를 때, 밤의 촛불들은 사라지듯이
 종교 앞에서는 이성은 파랗게 빛을 잃고

5) Edward Young, *Night Thoughts*, W, ll. 245-55.

6) Greene은 "Augustinianism and Empiricism: A Note on Eighteenth-Century English Intellectual History," *Eighteenth-Century Studies*, I (1967~1968), pp. 33-68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그후 상계서, *The Age of Exuberance*의 제 3장에서 이것을 되풀이했다.

초자연의 빛 속에 사라지고 녹아 없어진다.)

Dim as the borrowed beams of moon and stars

.....

Is Reason to the soul;...

And as those nightly tapers disappear,

When day's bright lord ascends our hemisphere;

So pale grows Reason at Religion's sight;

So dies, and so dissolves in supernatural light.⁷⁾

한편 이 시대의 이성 제일주의, 또는 합리주의의 기초와 근거라고 일컬어지는 과학정신도 실은 합리주의와는 상반되는 경험주의(empiricism)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이것은 다만 두뇌 작용, 즉 순수 논리적 추리 만으로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고, 반드시 오관을 통한 실제 관찰, 측정, 실험을 통해서만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경험 없는 이성은 쓸모없는 것이다. 종교에 있어서 이성은 하느님의 계시 없이는 무력한 것처럼 과학에 있어서도 경험에 근거하지 않는 이성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에서 다 같이 이성을 경시한다는 점에 있어서 종교와 과학이 18세기에 있어서는 양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 시대에 대해서 이제까지 진해 내려 온 선입관을 불식하기 위하여 약간 지나치게 이성의 경시, 또는 무시를 강조한 느낌이 없지 않다. 그러나 18세기가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종래의 여론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기는 하는 것이다. 이 반론이 의미하는 이성은 주로 추상적인 두뇌작용(abstract cerebration)이라는 뜻에 있어서의 이성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낱말이 항상 경험론에 대립하는 합리주의적인 이성이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 말도 18세기에 자주 쓰인 nature나 wit라는 말과 같이 매우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⁸⁾ 그리고 그 뜻은 모든 추상명사와 같이 따로 떨어져서는 명확해질 수 없고 문맥 속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더 명확히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이 말과 대조 또는 대립되는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더욱 뚜렷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위에서 잠시 언급된 대조적 개념만 보더라도, 미신에 대항하는 이성, 신들림(enthusiasm), 영감, 광신에 대립되는 이성, 계시나 신앙과 대조되는 이성, 인간의 열등하고 동물적인 성격을 극복하는 이성, 경험론에 대립하는 합리주의적 이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이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광기(madness), 감정, 본능, 직관, 환상, 상상, 어리석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대조적인 각 쌍에 있어서 Pope의 시는 대체로 어느 쪽에 호의를 보이는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럼으로써 Pope의 이성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가, 또 그가 무엇을 올바른 이성으로 보고 있는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7) *Religio Laici*, l. 1, l. 3, ll. 8-11.

8) Crane Brinton은 *The Portable Age of Reason* (Penguin Books, 1977)의 서문에서, "For most people in that age, reason was the way human mind — all human minds — naturally worked."라고 「이성의 시대」의 이성을 막연히 정의하고 있다. Johnson의 *Dictionary*(1975)는 11개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중, "The power by which man deduces one proposition from another, or proceeds from premises to consequences."라는 논리적 두뇌작용을 그 첫째로 들고 있다.

인간을 정의할 때 흔히 생각하는 갈대라는 Pascal의 말을 인용하여 이성적인 존재로 보는 한편, 마찬가지로 흔히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람의 성격을 설명할 때 냉철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하거나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두 종류로 양분하여 말하기 쉽다. Pope의 시에 있어서도 이 양분법을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Pope는 이지적인 성격보다 정서적인 성격을, 머리보다는 가슴을 더 중히 여김을 볼 수 있다.⁹⁾ 그 가장 좋은 예가 Chloe에 대한 비판이다. 「온통 상냥하고 신중한 성품을 지닌 Chloe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라는 물음에 그녀는 가슴(heart)이 없는 것이라고 답하면서 비판을 계속한다:

(그녀는 꼭 해야 할 대로만 말하고 거동하고 움직인다.
그러나 한번도 너그러운 생각에 미친 일은 없다.
미덕은 너무 괴로운 노력이므로
언제나 점잖음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한다.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감동할 줄 몰라
사랑해 본 일도 없고 사랑받은 일도 없다.)

She speaks, behaves, and acts just as she ought;
But never, never, reach'd one gen'rous Thought.
Virtue she finds too painful an endeavor,
Content to dwell in Decencies forever.
So very reasonable, so unmov'd,
As never yet to love, or to be lov'd.¹⁰⁾

Chloe처럼 이성적(reasonable)이기만 한 인간은 사랑도 할 수 없고 너그러움의 미덕도 있을 수 없다. 이성적인 것 자체가 결함이 아니라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인간적인 정이 말살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 인간은 인간이라기 보다 계산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라면 때로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Pope는 같은 시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저버리는 여성을 비판하고 있다:

(재사들로부터 눈을 돌려 ...을 보라.
.....
또는 언제나 욕정 아니면 기도에 탐닉하여
교회 생활과 창피한 생활을 동시에 하는 여자를.
.....
또는 여인의 원수인 시간과 생각을 없애려고
날마다 진통제에 밤마다 술마시어

9) Geoffrey Tillotson도 *Pope and Human Nature* (London: Oxford Univ. Press, 1958), p.57에서, "On several occasions in the letters Pope declared his preference for the 'heart' over the 'head'..."라고 지적하고 있다.

10) *Epistles to Several Persons (Moral Essays)*, Epistle II (To a Lady), ll.161-66. Pope의 시는 Twickenham Edition에서 인용함.

히히닥거리다가 아편에 몽롱하고, 술과 눈물로
즐거운 변화의 생활하는 듯한 여인을.)

Turn from Wits; and look on...,

.....

Or her, whose life the Church and Scandal share,

For ever in a Passion, or a Pray'r:

.....

Or who in sweet vicissitude appears

Of Mirth and Opium, Ratafie and Tears,

The daily Anodyne, and nightly Draught,

To kill those foes to Fair ones, Time and Thought.¹¹⁾

이성과 감정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소중한 너그러움, 우정, 사랑은 합리적인 머리(head)에서 보다는 느끼고 감동할 줄 아는 가슴(heart)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Chloe의 귀절은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정적인 요소는 일상생활에서 뿐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지성만이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문학 비평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Pope의 *An Essay on Criticism*은 주장하고 있다. 이 비평론의 제 1부에서 Pope는 비평의 기준을 제시하며, 그것으로서 Nature와 여기에서 고대인들이 추출하여 정리한 규칙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진정 강조하는 것은 규칙보다도 이성적인 이론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아름다움은 아무 규칙에도 안맞는다.

공들인 노력도 있으나 요행의 재치도 있는 것이다.

.....

그래서 페가사스도 더 가까운 길을 택하려고

흔히 가는 길에서 대담하게 이탈한다.

법속의 한계에서 대담한 반칙으로 벗어나

예술의 영역을 넘어선 아름다움을 잡는다.

이것은 판단을 거치지 않고 마음을 사로잡아,

그 모든 목적을 단번에 달성한다.)

Some Beauties yet, no precepts can declare,

For there's a *Happiness* as well as *Care*.

.....

Thus *Pegasus*, a nearer way to take,

May boldly deviate from the common Track.

.....

From *vulgar Bounds* with *brave Disorder* part,

And *snatch* a *Grace* beyond the Reach of Art,

Which without passing thro' the *Judgment*, gains

11) Ibid., I. 101, II. 105-6, II. 109-112.

The *Heart*, and all its End *at once* attains.¹²⁾

이러한 아름다움은 이성적인 판단(judgment)을 통해서서는 파악될 수 없으며 가슴, 즉 감정으로 직접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동을 느낄 줄 모르는 비평가는 규칙의 자로 사소한 부분적인 흠이나 잡으려 할 뿐이지 진정한 비평가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완전한 비평가는 전체를 바라보고 감동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완전한 비평가는 작가가 쓴 바로 그 정신으로
모든 문학 작품을 읽고
자연이 마음을 감동시키고 환희가 열광케 할 때는
전체를 개관하고 사소한 흠을 잡으려 하지 않는다.)

A perfect Judge will *read* each Work of Wit
With the same Spirit that its Author *writ*:
Survey the *Whole*, nor seek slight Faults to find
Where *Nature* moves, and *Rapture* warms the Mind.¹³⁾

또한 이러한 감동은 좁은 편견을 가지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쓴 것과 같은 정신으로 작품을 읽을 때 얻어진다. 즉 비평가는 작가에 대하여 흠을 잡는 비판자가 아니라 작가의 정신을 이해하고 동감하는 협력자, 또는 친구이어야 한다. 이 친구로서의 비평가는 우정으로서 작가의 창작을 고무해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고 찬양토록 도와주었던 고전시대의 너그러운 비평가이며, Pope는 그와 같은 비평 정신을 재생시키려 했던 것이다:

(너그러운 비평가는 시인의 열정을 부채질하고
세상 사람에게 순리로 찬탄하게 가르쳤다.)

The gen'rous Critic *fann'd* the *Poet's* Fire,
And taught the World *with Reason* to *Admire*.¹⁴⁾

이 귀절에 대하여 David Morris는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Here, two apparent opposites...emotional admiration and analytical reason...are reconciled, even as traditional antagonists...poet and critic...become colaborators.¹⁵⁾

시는 이론과 규칙만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직접 감정에 호소하는 아름다움을 지니는 것이므로 비평가는 예민하고 풍부한 감정의 소지자여야 하며, 작가와의 동감, 우정, 그리고 너그러움 없이는 올바른 비평가라 할 수 없다. 또 작품의 진가와 참뜻을 파악하는 진정한 비

12) *An Essay on Criticism*, ll. 141-2, ll. 150-1, ll. 154-7.

13) *Ibid.*, ll. 233-36.

14) *Ibid.*, ll. 100-101.

15) David B. Morris, *Alexander Pope: The Genius of Sens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4), p. 67.

평은 이론을 쫓는 이성에만 의존할 수 없고 이해와 동감을 가능케 하는 정서와 감정의 힘에 더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진정한 비평은 머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이 Pope의 비평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비평에 있어서도 느낌, 또는 감정과 이성은 제각기 따로 작용해서는 안되고 조화를 이루어 상부상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작품의 창작에 있어서 상상(wit)과 판단력(judgment)이 아내와 남편처럼 서로 도와야 된다는 생각과 유사한 점이 있다. 날개 달린 시신의 준마는 그 비상을 억제할 때 그 진가를 나타낸다(The winged Courser.../Shows most true Mettle when you *check* his Course.¹⁶)고 함에 있어서 Pope는 상상력 보다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이 들린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상상력이 먼저 비상해야만 판단력, 또는 이성이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창작에서는 상상력이 우선 발동해야 된다. 또한 위에서 인용된 바와 같이 상상력의 Pegasus는 논리적인 규칙이 찾아 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이론을 초월한 곳에서 찾아 내는 것이다. 따라서 창작에서도 이성보다 상상력이 앞선다는 것이 Pope의 비평론의 취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상상력과 이성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올바른 상상은 이성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월등한 이성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과학에 있어서도 새로운 진실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도화선의 구실을 해 온 것이다. Pope도 상상력을 쓸모있게 해 주는 것이 이성이며 이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풍부한 상상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할 판단력이 그만큼 부족하다.
상상력과 판단력은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 돕게 되어 있으나 싸우는 일이 많다.)

Some, to whom Heav'n in Wit has been profuse,
Want as much more to turn it to its use;
For *Wit* and *Judgment* often are at strife,
Tho' meant each other's Aid, like *Man* and *Wife*.¹⁷

An Essay on Man(인간론)에 있어서도 이성은 자애(self-love), 또는 욕망(passion)보다 하등의 우월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Pope의 심리학에 의하면 자애와 더불어 인간성을 다스리는 두 가지 원리 중의 하나로서의 이성은 자애보다 상위에 서서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자기 구실을 할 뿐이고 이 양자가 잘 조화를 이룰 때가 바람직한 상태인 것이다:

(인간성 안에는 두 원리가 다스리고 있다.
자기 사랑은 충동질하고 이성은 억제한다.
후자는 선이고 전자는 악이라고 할 수 없다.)

16) *An Essay on Criticism*, ll. 86-87.

17) *Ibid.*, ll. 80-83.

각기 제 목적에 따라 활동시키거나 다스리는 것이다.
 그들의 올바른 작용에 모든 선을 돌리고,
 부당한 움직임에 모든 악을 돌려야 한다.)

Two Principles in human nature reign;
 Self-love, to urge, and Reason, to restrain;
 Nor this a good, nor that a bad we call,
 Each works its end, to move or govern all:
 And to their proper operations still,
 Ascribe all Good; to their improper, Ill.¹⁸⁾

이성은 욕정, 또는 욕망을 다스리기는 커녕 세도있는 신하에게 끌려다니는 연약한 여왕(weak queen)처럼 욕정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기가 일수다.¹⁹⁾ 이와 같은 이성의 타락을 John Donne도 그의 유명한 Sonnet(Batter my heart)에서 개탄한 바 있다:

(내 안에서 당신을 대신할 이성은 나를
 보호해야되나, 사로잡혀 연약하고 부정해 졌읍니다.)
 Reason, Your viceroy in me, me should defend,
 But is captivated, and proves weak or untrue.

그리고 이미 인용된 바와 같이 Dryden도 이성을 달이나 별처럼 희미한 빛으로 비유했다. 이와 같이 이성의 힘이 약하고 그 빛이 희미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 속에 있는 이성이기 때문이다. 이 이성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유한한 존재자인 인간은 이 원천에서 극히 일부분을 나눠 가질 따름이다. 결국 이성의 연약함은 인간의 연약함이고 이것은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인간의 불완전성은 존재의 사슬(the chain of being)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위치에 기인한다. 이 위치는 신이나 천사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금수보다는 높은 중간의 자리이다. 여기에 자리한 인간은 신이나 천사가 아니면서도 신성을 약하게나마 지니고 있고 한편으로는 야수가 아니면서도 동물적인 저열성을 면치 못하는 이올배반적인 존재이다. Pope는 유명한 다음 귀절에서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간 상태의 이 지협에 위치하여……
 인간은 어정쩡하다. 움직여야 할지 정지해야 할지,
 자기를 신으로 볼 것인지 짐승으로 볼 것인지,
 마음을 택할지 육신을 택할지 망설이고,

18) *An Essay on Man*, Epistle II, ll. 53-8. 이하 이 작품에서의 인용은 로마숫자(Epistle)와 아라비아숫자(line)로 인용된 귀절 다음에 괄호속에 표시함.

19) *An Essay on Man*, II, ll. 147-60참조. 이성의 힘이 나약할 뿐 아니라 욕망(passion)을 정당화하는 도구라고 말할 예를 Maynard Mack은 Twickenham Edition의 각주에서 여러 개 들고 있다. 그밖에 가장 극단적인 예는, "Reason is, and ought only to be, the slave of the passions."라는 David Hume의 말일 것이다. Hume이 뜻하는 이성은 순전히 논리적 진과 부를 가리는 두뇌작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면 Donne이 개탄하는 이성은 도덕적 선과 악을 가리고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도록 권하는 양심, 또는 도덕적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태어났으나 죽어야 하고 생각을 하나 틀릴 뿐이다.
 그의 이성이 이러하니, 너무 많이 생각하건
 적게 생각하건 무식한 것은 마찬가지다.)

Plac'd on this isthmus of a middle state,

.....

He hangs between; in doubt to act, or rest,
 In doubt to deem himself a God, or Beast;
 In doubt his Mind or Body to prefer,
 Born but to die, and reas'ning but to err;
 Alike in ignorance, his reason such,
 Whether he thinks too little, or too much; (II, 3, 7-12.)

이와 같이 중간 위치에서 불완전한 인간이 Stoa학과처럼 자기 이성의 우월성을 믿고 동물적인 욕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인간의 위치를 망각하고 신이 되려는 망상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 이와 반대로 이성을 저버리고 육신의 욕정에 내맡기는 것도 인간의 위치를 망각하고 동물로 타락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신적인 이성을 지향하면서도 동물적인 욕정을 수용하고 이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인간적 이율배반이다. 따라서 Pope는 인간적 이성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따르라는 모순된 교훈을 내리는 것이다:

(이 강한 원리의 움직임을 억제하기 위하여
 늘 이성을 사용하고 이성에 늘 주의하라.
 늘 주의하면 습관과 경험이 생기고
 습관과 경험은 이성을 강화하고 자애를 억제한다.)

The action of the stronger to suspend
 Reason still use, to Reason still attend:
 Attention, habit and experience gains,
 Each strengthens Reason, and Self-love restrains. (II, 77-80)

그러나 Pope에 있어서는 이성이 욕망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항해를 함에 있어서 이성은 해도이고 욕망은 배를 움직이는 바람이다:

(인생의 넓은 바다를 우리는 제각기 항해하니,
 이성은 해도이고 욕망은 바람이다.)

On life's vast ocean diversely we sail,
 Reason the card, but Passion is the gale; (II, 107-8)²⁰⁾

이성은 인간의 모든 욕망과 욕정을 억누르는 청교도적 양심도 아니며, 무정하고 냉담한 계

20) II. 59-60에서도 self-love, 즉 욕망이 시계를 움직이는 태엽, 즉 원동력으로, 이성은 전체를 조종하는 균형기(balance)로 비유되고 있다.

산기도 아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의 이성과 욕망의 관계는 비평에 있어서의 이성과 감정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협조하는 친구와 같은 것으로서 이 양자를 분리시키기는 어려운 것이다.

(섬세한 스콜라학자들이나 이 친구들을 싸우게 하라.
그들은 융합시키기 보다 분리시키기에 더 애써서
재사담게 잼싼 재주로 은총과 미덕을,
그리고 감성과 이성을 갈라 놓는다.
재사들은 바보들처럼 이름 가지고 싸우지만
아무 뜻도 없거나 그게 그 소리이다.)

Let subtle schoolmen teach these friends to fight,
More studious to divide than to unite,
And Grace and Virtue, Sense and Reason split,
With all the rash dexterity of Wit:
Wits, just like fools, at war about a Name,
Have full as oft no meaning, or the same. (III, 81-86)

관능(Sense)과 이성(Reason)은 이론상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같은 목적을 위해 작용한다. 이 실제적인 결과를 무시하고 무책임(rash)하게 두뇌 작용의 재간을 피운다는 것은 Schola학자들이나 즐기는 무의미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Schola학파적 말장난을 비웃는다는 점에서, 경험을 도외시키고 머리 속에서만 논리를 전개하여 새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합리주의를 Pope도 비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가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는 주장 속에 담긴 이성은 바로 이런 합리주의적인 이성이다. Greene이 지적한 것처럼 이 당시 영국을 지배하던 사조는 대륙의 합리주의 철학보다도 Bacon의 실험과학주의와 Locke의 경험론적인 인식론이었다. Swift와 Johnson과 같은 시대의 대표적 풍자가들의 표적은 실제 세상에 대한 정당한 체험적 반응을 교란시키는 Descartes적 논리였다고 Tillotson도 지적하면서 Swift의 *A Modest Proposal*을 예로 들고 있다.²¹⁾ Pope도 다음과 같은 귀결에서 경험론적 입장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하늘의 신이나 이 세상 인간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근거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인간에 관하여, 추론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야 할,
망위의 그의 상태 밖에는 무엇을 보는가?)

Say first, of God above, or Man below,
What can we reason, but from what we know?
Of Man what see we, but his station here,
From which to reason, or to which refer? (I, II, 17-20)

신이나 인간에 관하여는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과 우리의 눈으로 관찰한 것을 근거로 해

21) Tillotson et al.편 전제서, p. 1.

야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우주 전체의 구조와 움직임을 눈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론만으로 하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험론적 생각을 나타냈다고 해서 Pope가 실험주의적 학문, 즉 자연과학을 찬성하고 찬양한 것은 아니다. *An Essay on Man*에서 그는 과학이 아무리 실험과 측정의 근거를 둔다해도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

(가 보라, 놀라운 피조물이여 ! 과학이 인도하는 곳으로 올라,
지구를 재고, 공기의 무게를 달고 조류를 설명하라.
혹성에게 어느 궤도를 달릴지 가르쳐 주고
나이든 시간을 바로잡고 태양을 조종해라.
.....

가서 영원한 지혜인 신에게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고
제자신으로 돌아와서 바보임을 깨달아라.)

Go, wond'rous creature! mount where Science guides,
Go, measure earth, weigh air, and state the tides;
Instruct the planets in what orbs to run,
Correct old Time, and regulate the Sun;
.....

Go, teach Eternal Wisdom how to rule...
Then drop into thyself, and be a fool! (Ⅱ, 19-22, 29-30)

지구의 크기를 재고 공기의 무게를 달고 조류를 설명하며 혹성의 궤도를 알아내는 일은 Newton과 Boyle 등을 비롯한 왕립협회(Royal Society)를 중심으로 한 과학자들이 당시에 실제로 행했던 과학적 노력이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제를 인간이 이루려 하는 것은 탐탁하게 볼 수 없으며 도대체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비웃고 있는 것이다. Newton이 알아 낸 일은 놀랍기는 하지만 신과 천사의 눈에는 원숭이의 재주로 밖에는 안 보이는 것이다 :

(우월한 존재자들이 근래 유한한 인간이
모든 자연의 법칙을 밝혀 낼 때
혹의 형태 속에 그런 지혜 있음을 놀라와하고
우리가 원숭이를 보이듯이 Newton을 전시했다.)

Superior beings, when of late they saw
A mortal Man unfold all Nature's law,
Admir'd such wisdom in an earthly shape,
And shew'd a NEWTON as we shew an Ape. (Ⅱ, 31-4)

또한 인간의 지능이 이와 같이 놀라와서 혜성의 운행을 규정하고 예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삶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고, 이것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여 망하고 마는 것이다 :

(그의 법칙으로 재빠른 혜성을 묶어 놓은 그가
 자기 마음의 한 동작이라도 설명하거나 포착할 수 있겠는가?
 혜성의 불이 여기에서 솟아, 저기에 짐을 본 그가
 자신의 시작이나 끝을 설명할 수 있는가?
 아, 이상하도다. 인간의 우월한 재간은 막힘없이
 떠올라, 한 학술에서 단 학술로 상승하지만
 그의 위대한 사업이 막 시작할 때
 이성이 쌓아올린 것이 욕정으로 무너진다.)

Could he, whose rules the rapid Comet bind,
 Describe or fix one movement of his Mind?
 Who saw its fires here rise, and there descend,
 Explain his own beginning, or his end?
 Alas what wonder! Man's superior part
 Uncheck'd may rise, and climb from art to art:
 But when his own great work is but begun,
 What Reason weaves, by Passion is undone. (I, 35-42)

따라서 자연과학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자만심을 다 버려야 한다. 인간의 지능을 과시하거나, 호기심의 만족, 지식을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과학을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허영이다. 인간의 행복에 진정 이바지하는 지식은 그다지 방대하지 않으며, 우주 속에서 광범위하게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

(그러니 겸손을 향도삼아 과학을 추구하라.
 우선 그 교만의 모든 장식을 다 뜯어내고
 허영이나 치장에 불과한 것,
 학문의 사치품이나 부질없는 것 또는
 인간의 머리의 넓이를 전시할 속임수,
 호기심의 만족에 불과한 것, 또는 정교한 아품을 없애라.
 우리의 악덕이 학술로 만든 것의 전부를
 말살하든지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 없애라.
 그리고 나면 과거에도 유용했고 미래에도
 유익할 지식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 것이다.)

Trace Science then, with Modesty thy guide;
 First strip off all her equipage of Pride,
 Deduct what is but vanity, or Dress,
 Or Learning's Luxury, or Idleness;
 Or tricks to shew the stretch of human brain,
 Mere curious pleasure, or ingenious pain:
 Expunge the whole, or lop th'excrecent parts
 Of all, our Vices have created Arts:

Then see how little the remaining sum,
Which serv'd the past, and must the times to come! (II, 43-52)

Stoa학파가 인간의 동물적 감정을 무시하고 이성만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이 교만인 것처럼 Schola학파가 경험적 현실을 도외시하고 논리적인 추리를 즐기는 일이나, 자연과학자가 호기심의 만족을 위하여 대자연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교만이다. 올바른 이성(right reason)은 인간의 위치와 제한성을 인식하고 감정과 타협·협력하며 감각이 전해주는 현실, 즉 경험을 존중하고 인간의 행복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헛된 지식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 올바른 이성을 망각하는 자들은 어리석음과 교만에 빠진다. Pope의 시의 곳곳에서 교만(pride)은 그릇된 이성과 어리석음의 동의어이며, 따라서 올바른 이성의 반의어임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비평에서도 인간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이성을 오도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실수 많은 판단력을 눈멀게 하고
마음을 오도하는 모든 원인 중에서
허약한 머리를 강한 편견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보에 늘 따르는 악덕, 자만심이다.)

Of all the Causes which conspire to blind
Man's erring judgment, and misguide the Mind,
What the weak Head with strongest Byass rules,
Is Pride, the never-failing Vice of Fools.²²⁾

교만은 곧 그릇된 이성과 어리석음이며, 이 교만이 만들어내는 몰상식을 제거해 주는 것이 곧 올바른 이성임을 다음 귀절에서 볼 수 있다:

(교만은 지능이 부족할 때 우리를 지키려 들어서서
이성이 비어 놓은 그 큰 공백을 채운다.
일단 올바른 이성이 그 구름을 쫓아버리던
진리가 강렬한 빛으로 우리 위에 터져 온다.)

Pride, where Wit fails, steps in to our Defence,
And fills up all the mighty Void of Sense!
If once right Reason drives that Cloud away,
Truth breaks upon us with resistless Day.²³⁾

교만은 양식(Sense)을 쫓아버리고, 이 사라진 양식을 되찾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이성이므로, 올바른 이성은 곧 양식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이 올바른 이성과 양식을 상실하고 교만에 빠지는 것은, *An Essay on Man*의 다음과 같은 여러 귀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간이

22) *An Essay on Man*, II. 201-4.

23) *Ibid.*, II. 209-211.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이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²⁴⁾

(교만, 이성의 교만 속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
모두가 제 영역을 버리고 하늘로 치달는다.
교만은 늘 축복받은 거처를 겨냥하여
인간은 천사가 되려 하고 천사는 신이 되려 한다.)

In Pride, in reas'ning Pride, our error lies;
All quit their sphere, and rush into the skies.
Pride still is aiming at the blest abodes,
Men would be Angels, Angels would be Gods. (II, 123-6)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거나 그 반대로 동물로 타락하지 말고 중간의 자리, 즉 중용을 지킴으로써 인간적 올바른 이성을 유지하고 올바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올바른 이성과 대립되는 것은 교만과 어리석음이지만, 더욱 뚜렷한 것은 광기(madness)이다. David Morris가 지적한 것처럼, 18세기에 있어서는 광기는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었다. 광기는 이성이 아니라, 올바른 이성과 양식에 대립하는 것이었다. Swift의 *A Modest Proposal*의 미친 제안자는 정확한 수치를 열거하면서 정연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미친 사람의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의 전제가 틀린 것이다. Locke도 미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They do not appear to me to have lost the Faculty of Reasoning: but having joined together some Ideas very wrongly, they mistake them for Truths; and they err as Men do, that argue right from wrong Principles....Thus you shall find a distracted Man fancying himself a King, with a right inference, require suitable Attendance, Respect, and Obedience.²⁵⁾

광기 중에서 가장 혼란한 것은 Locke가 여기에서 들고 있는 예와 같이 자기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과대망상증이다. 이런 광인의 전형은 이 우주와 세계의 삼라만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온 우주 체계가 무너져야 된다고 착각하는 인간이다. Pope는 이런 자에게 최악의 욕설을 퍼붓는다 :

(지배하는 천사들이 그 영역에서 이탈하면
존재는 존재와, 세계는 세계와 부딪혀 깨진다.
하늘의 모든 기반이 그 중심을 향해 기울고
자연은 하나님의 옥좌 쪽으로 흔들린다.
이 엄청난 질서를 깨트리다니—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교약한 벌레여! 미친 것, 교만, 신성모독이로다!)

Let ruling Angels from their spheres be hurl'd,

24) Arthur O. Lovejoy는 이점을 *Essays in the History of Ideas* (Westport: Greenwood Press, 1978), pp. 64-65에서 상세히 밝히고 있다.

25)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90), ed. Peter N. Nidditch (Oxford: Clarendon Press, 1975), p. 161.

Being on being wreck'd, and world on world,
 Heav'n's whole foundations to their center nod,
 And Nature tremble to the throne of God:
 All this dread ORDER break...for whom? for thee?
 Vile worm!...Oh Madness, Pride, Impiety! (I, 253-257)

이 과대망상이라는 광기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극단적으로는 헛된 영감을 받고 스스로를 구세주나 선지자로 부르는 자도 있지만, 어리석고 글 재주도 없이 시인을 자칭하여 날뛰는 자들, 작품에 대한 감각도 없이 사소한 허물만 들추면서 비평가나 학자연하는 자들도 이 부류에 속한다. 이런 자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특히 *Epistle to Dr. Arbuthnot*에는 미친 시인들을 비롯하여 이런 종류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자들로 가득차 있다:

(문, 문을 좀 닫게, 존아, (피곤해서 나는 말했다).
 초인종을 떼어내고 내가 병났다, 죽었다고 말해 주게.
 천황성이 열린다, 아니 그보다 틀림없이
 온 미치광이들이, 아니면 자칭 시인들이 풀려나왔어.
 제각기 눈에 불을 켜고 손에는 종이 들고
 고향치고 외우고 온 땅에 미쳐 돌아 다닌다.)

Shut, shut the door, good John! (fatigued, I said),
 Tie up the knocker, say I'm sick, I'm dead,
 The Dog Star rages! nay 'tis past a doubt
 All Bedlam, or Parnassus, is let out:
 Fire in each eye, and paper in each hand,
 They rave, recite, and madden round the land.²⁶⁾

인색하지만 비굴한 문사들의 아침으로 잔뜩 부풀어 올라 위대한 후견인으로 자신을 착각하는 Bufo의 모습도 가소롭지만, 비록 글재간은 있으나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하여 타인의 장점을 인정하지 않고 유아독존적인 Atticus는 더욱 개탄스럽다. 이와 같은 자기 과장이나 유아독존(solipsism)은 모두 우둔과 교만인 동시에 광기인 것이다.

이 광기는 근본적으로는 하늘이 정해 준 우주의 체제와 질서를 교란하려는 것, 즉 자연의 길을 이탈하려는 데에서 생겨 난다. 자연의 길은 선(good)이며 이 선은 극단이 아니라 중용에 있다. 또 자연의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아무 사람이나 올바른 생각을 하고 착한 마음만 가지면 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Pope는 교시한다:

(자연의 길을 택하고 미친 생각의 길을 버려라
 어떤 지위, 어떤 머리의 사람도 그 길에 도달하고 생각할 수 있다.
 그 장점은 명백하며, 극단적인 것에는 없다.
 똑바로 생각하고 선의를 품기만 하면 된다.

26) *An Epistle from Mr. Pope to Dr. Arbuthnot*, ll. 1-6.

사람마다 팔자 다르다고 아무리 개탄해도
인간 공통의 판단력과 편안은 평등하다.)

Take Nature's path, and mad Opinion's leave,
All states can reach it, and all heads conceive;
Obvious her goods, in no extreme they dwell,
There needs but thinking right, and meaning well;
And mourn our various portions as we please,
Equal is Common Sense, and Common Ease. (N, 29-34)

올바른 생각(thinking right)은 즉 올바른 이성이고 이것은 미친 생각(mad opinion)을 버리게 하고 선의(meaning well)를 가지게 한다. 또 이것은 학식이나 지위의 고하와 상관없이 모든 만민에 공통되는 상식(common sense)이며 양식이다. 이것을 잃지 않는 사람은 광적인 자기 과장이나 교만이 없다. 이런 사람은 또 이 세상에 자기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존재하며, 자신의 행복은 모든 이웃과 사회의 구성원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너그럽고 겸손하며 자비와 박애심을 잃지 않으며, 이러한 미덕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진실을 Pope는 강조한다 :

(이 진실을 알아라(인간은 이것만 알면 족하다)
이 세상에서는 미덕만이 행복이다.)

Know then this truth (enough for Man to know)
"Virtue alone is Happiness below." (N, 309-310)

인간의 삶의 최종 목표인 행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 미덕은 올바른 이성으로 자기사랑(self-love)을 잘 조절하여 사회 사랑으로 인도하고 승화시킬 때 달성된다. 결국 올바른 이성은 사랑과 행복의 근원인 것이다. 이 올바른 이성을 망각하고, 단순한 두뇌 작용을 자랑하여 교만하고 눈 먼 인간에게 Pope는 단순하고 명백한 인간의 진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

(지성의 그릇된 거울에 대하여 자연의 빛을 쳐들어,
착각하는 교만에게 존재하는 만사는 옳다는 것을,
이성과 욕망은 다 같은 큰 목적에 호응하며,
진정한 자기 사랑과 사회 사랑은 하나이며,
미덕만이 땅위의 행복을 이룩하고
우리가 알 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For Wit's false mirror held up Nature's light;
Shew'd erring Pride, WHATEVER IS, IS RIGHT;
That REASON, PASSION, answer one great aim;
That true SELF-LOVE and SOCIAL are the same;
That VIRTUE only makes our Bliss below;
And all our Knowledge is, OURSELVES TO KNOW. (N, 393-398)

Pope의 이 압축된 세계관과 인간철학에서 그의 이성에 대한 태도와 견해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종류의 이성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멸시하는 이성은 추상적인 논리에만 능하여, 인간의 감정을 무시하고 인간을 인간답지 않은 냉혈동물로 만드는 이성이다. 그가 존중하고 선양하는 이성은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자기의 위치와 한계를 자각하고 감정과 욕망을 수용하는 이성이다. 이것이 올바른 이성이며 양식(good sense)이다. 이것은 말하자면 컴퓨터와 같은 기계적인 이성이 아니라 인간화된, 인간적인 이성이다. 이런 이성은 겸손하고, 불행 속에서도 세상을 비난하지 않으며, 욕정을 수용하여 인도한다. 또 타인에 대한 사랑이 곧 자기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자비로운 덕을 실천하여 행복한 삶을 보내는 것이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행복인데, 진정한 행복은 미덕으로밖에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미덕을 얻기에 필요한 것은 자기자신을 아는 것이고,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적 올바른 이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Pope가 강조하는 이성이다.

이제까지 주로 *An Essay on Man*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 본 Pope의 이성에 대한 태도로부터 더 한걸음 더 나아가 그의 언어에 대한 태도도 미루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 정신 작용의 표현으로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직접적이고 용이하게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는 특히 인간 이성의 표현이며 이것으로써 지식을 추구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즉 이성과 언어는 동일물의 표리 관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Pope가 올바른 이성, 즉 인간화된 이성을 선양한다면 언어에 대하여도 인간화된 언어, 즉 순수 논리적이고 기계적인 언어가 아니라 인간적인 사상, 감정, 체험을 담은 언어를 옹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만이 인간에게 호소하고 인격과 미덕의 증진에 이바지하며, 개인과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사상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Pope는 *The Dunciad* IV에서 오로지 언어만을 강조하는 교육자를 풍자하는 것이다 :

(인간은 말로 짐승과 구별되는 고로
말이 인간의 영역이니 우리는 말만 가르친다.)

Since Man from beast by Words is known,
Words are Man's province, Words we teach alone.²⁷⁾

이렇게 주장하는 선생님은 인간이 말 때문에 동물과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좋으나,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타내는, 또는 그것이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과 분리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을 분리하여 내용을 무시하고 말의 껍데기만 가르친다면, 말의 형식, 즉 문법이나 이론만 훈련시키거나, 뜻도 모르는 문장을 맹목적으로 암기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무미건조하고 냉정한 기호(sign)로서의 언어 아니면 뜻도 모르고 되풀이하는 앵무새의 말 밖에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 어느 쪽도 인간적인 언어라 할 수 없다. 인간적인 언어는 올바른 이성, 즉 이성과 감정, 상상력, 체험 등을 수용하고 조화를 이룬 이성과 사고의 표현이며 그릇이고 도구이다. 이 인간적인 사고를 억누르고 공허한 말의 형식을 강조하는 교육자의 노력을 Pope는 이렇게 회화하고 있다 :

(상상력이 판단의 민감한 샘을 더놓아,

27) *The Dunciad*, Book IV, ll. 149-150.

학생이 질문하고 추측하고 알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억력을 동원하고 머리를 팍 채운다.
반항하는 지성을 묶고 사슬을 점점이 감는다.
호흡을 단련시키려고 생각을 가둬 두고,
죽을 때까지 말의 우리 속에 감금한다.)

To ask, to guess, to know, as they commence,
As Fancy opens the quick spring of Sense,
We ply the Memory, we load the brain,
Bind rebel Wit, and double chain on chain,
Confine the thought, to exercise the breath;
And keep them in the pale of Words till death.²⁸⁾

말은 올바른 이성(sense)과 사고를 억매지 않고 제대로 활개를 치게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과 그 사회의 행복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고 전파시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언어에 대한 Pope의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지식의 목적, 용도 및 한계에 관하여 대립하였던 두 사조의 한편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A.L. Williams는 지적하고 있다.²⁹⁾ 고대 회랍의 sophist와 Plato의 대립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대립은 그후 Cicero와 철학자들, 인문학자(humanist)와 Schola학파, 고대파(Ancients)와 현대파(Moderns) 등 여러 형태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 대립은 교양 3과(trivium)중 수사학(rhetoric)과 논리학 또는 변증법(dialectic)의 대립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논쟁의 요점은 말 또는 화술이 진실과 지혜를 전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변증법적인 이론가나 과학자가 보기에는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의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의 표면만 화려하게 장식하는 기술에 불과하며 진리와 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lato와 Aristotle은 말로서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하는 sophist의 자랑을 맹렬히 비난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Pope가 풍자하고 있는 교육자가 바로 수사학자이고 Pope는 그 반대인 변증법 옹호자처럼 보일 것이다. 실은 그 정반대이다. Cicero가 역설했고 Renaissance가 계승한 수사학의 이념은 단지 화술의 연마가 아니라 그 사회에 유익한 연설가 또는 웅변가의 훈련과 양성이었다. 이러한 연설가는 깊은 지식과 고결한 인격을 갖춘 전인(universal man)이어야 하며 사회를 위하여 그 지식과 인격을 이바지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같은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수사학적 수련의 목적이었다. 웅변술은 단지 화술의 훈련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지식을 사회의 향상에 이용하게 하고, 사람을 쓸모있고 도덕적인 시민이 되게 훈련시키는 기술이었다. Cicero의 시대 이래로 웅변과 지혜는 거의 같은 말로 통용되었고 이 지혜는 가만히 혼자 사는 지혜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지혜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딴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수사학과 또는 인문학과가 강조한 것은 유익한 지식이나 지혜였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28) Ibid., ll. 155-160.

29) Aubrey L. Williams, *Pope's Dunciad: A Study of its Meaning* (London: Methuen & Co. 1955), p. 104 ff.

육상과 수요를 만족시켜 주는 세속적으로 유용한 지식(worldly wisdom)과는 엄격히 구별되었다. 그들이 강조한 지혜는 인간적 지혜(humane wisdom)로서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정치, 사회, 윤리 및 종교 등 전인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지혜였다. 이것은 바로 Pope가 강조한 인간 자신에 관한 지식이며, *An Essay on Man*의 결론은 곧 이와 같은 인문학자의 주장을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문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구의 크기를 재고 공기의 무게를 달아 보려고 하는 과학자나, 이끼와 조개 껍질 따위를 수집하고 그 종류를 식별하기를 자랑하는 감식가들(virtuosi)은 인격의 수양이나 덕망과는 아무 상관없고 쓸데없는 지식을 추구하는 부질없는 인간들로 보일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이용하여 창조주의 뜻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호기심만 만족시키려 할 뿐이다:

(인간의 자녀들이 눈과 이성은 다만 파리를
연구하도록 주어졌다고 생각할 지어다!
자연은 부분적인 좁은 모양으로 보고
전체의 창조주는 보지 못할 지어다.
다만 장난치기를 배우거나 가장 많이 보는 자라도
창조주를 섬길 줄은 모르고 신기해 하기만 할지어다.)

O! would the Sons of Men once think their Eyes
And Reason giv'n them but to study Flies!
Seen Nature in some partial narrow shape,
And let the Author of the Whole escape:
Learn but to trifle; or who mot observe,
To wonder at their Maker, not to serve.³⁰⁾

또한 인문학자의 눈으로 보던 논리 전개에의 정확성과 예리성을 자랑하는 변증법이나 Scholastic 철학과는 인간 사회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탁상공론을 꾸며내는 합리주의자에 불과할 것이다. 이들은 흔히 더러운 배 창자 속에서 실을 자아 내어, 그 섬세함이 놀랍기는 하나 아무 실속과 이득이 되지 못하는 거미줄을 치는 거미로 비유된다. 요컨대 인문학자에게는 지식을 위한 지식, 이론을 위한 이론, 학문을 위한 학문, 예술을 위한 예술 같은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것은 실용성이 있어야 한다. Pope가 주장하듯이 건물의 아름다움도 그 사치스런 찬란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에 있으며 이 실용성은 곧 양식(sense)인 것이다:

(그대는 로마가 영광스러웠지, 사치스럽지 않았음을,
그리고 거창한 건물은 한때는 쓸모있는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비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유용성 뿐이며,
찬란함은 양식으로부터 그 빛을 얻는다.)

You show us, Rome was glorious, not profuse,

30) *The Dunciad*, Book IV, ll. 453-458.

And pompous buildings once were things of Use

.....

Tis Use alone that sanctifies Expende,

And Splendor borrows all her rays from Sense.³¹⁾

또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근본 목적이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양식이며, 이 양식은 일곱가지 학예와 맞먹는 것이다 :

(비용보다 더 필요한 어떤 것, 그리고 심지어
기호보다 앞서는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은 양식이다.
양식은 하늘만이 주는 선물이고, 학문은 아니지만
그 값은 일곱가지 학문과 완전히 맞먹는다.)

Something there is more needful than Expende,

And something previous ev'n to Taste... 'tis Sense:

Good Sense, which only is the gift of Heav'n,

And tho' no science, fairly worth the seven.³²⁾

이 양식은 비단 건축술이나 정원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유익한 모든 예술과 학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이 인문학자의 주장이라 할 수 있다. Scholastic 철학자처럼 논리를 위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도 도를 넘으면 인간 생활과 관계가 없어지고 비인간화한다. 또 과학자와 감각가들처럼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분의 물질에 대한 지식만 추구하는 것도 인간 정신의 진정한 이익과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이다.

이들의 비인간화 경향의 공통적인 징표는 인간적 언어에 대한 불신과 멸시이다. 이들에게는 인간의 언어는 감정과 연상 등, 비논리적인 요소로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래서 왕립협회의 Sprat는 여러가지 사항을 그와 거의 같은 수의 낱말(so many things almost in an equal number of words)로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자나 논리학자는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수사학과와 인문주의자는 이런 경향에 대항하고 인간에 관한 지식과 인간적 언어를 강조한 것이다. Peter Hughs도 이 점을 지적하고, Swift나 Pope같은 풍자가들은 합리주의자와, 또 그 정반대인 신들린 몽상가에 의한 인간적 언어의 추방에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What they...sought to reverse...were the attempts of projectors, angelic Cartesians, pedants, and enthusiasts to do away with language, to substitute for the mediated character of human speech the inhuman precision of formulae or the superhuman speaking-in-tongues of enthusiasm. Taken to their extremes, these two attitudes lead to the two most completely unmediated of languages, that of mathematics, which speaks directly to the reason and ignores the emotions; and that of music,

31) *Epistles to Several Persons (Moral Essays)*, Epistle W (To Burlington), ll. 23-24, ll. 179-180.

32) *Ibid.*, ll. 41-44.

which speaks directly to the emotions and ignores the reason.³³⁾

인간적인 언어는 순수 이성에 의해서만 해독되는 수학적 기호도 아니고 또한 순수 감정에 호소하는 음악 소리가 아니라 이 양 극단이 조화를 이루는 언어다. 즉 이 언어는 이성과 감정이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이성, 또는 양식의 언어이다. Pope는 이 양식의 언어로 올바른 이성을 잃어 가는 세상에게 양식을 지키고 인간성을 되찾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Pope는 냉철한 합리주의적인 이성에 대하여 대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미덕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하는 학문과 지식에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현실적인 환상, 신들림, 광기 등을 지지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합리주의적 이성과 환상은 정반대로 대립하는 정신 작용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은 이 양자에는 공통점이 있다. 합리주의적인 이성은 체험적 현실과 인간 이성의 제한성을 망각하거나 도외시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을 전개하다가 인간성에 배치되는 환상적인 결론을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환상이나 그릇된 상상은 현실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공상 속에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이 양자는 체험적 현실과 인간의 한계성을 무시하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는 과대망상증 같은 광기 속에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Pope는 이것들을 다 배척하고 그 대신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겸손한 이성, 즉 올바른 이성과 양식을 제창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Pope의 생각이 18세기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 시대는 합리주의적인 이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양식적이고 올바른 인간적인 이성이라는 뜻으로 「이성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Donald Greene이 이 시대가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풍성과 과잉(exuberance)의 시대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주로 예술의 양식, 특히 풍자 문학의 과장된 표현에 있다.³⁴⁾ 그는 이것을 바로크(baroque)풍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은 18세기보다 17세기 예술에 더 합당할 것이다.³⁵⁾ 그리고 18세기 예술에 바로크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전반적인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용과 절제와 격식을 강조하는 18세기적 사회풍토에서 상상적으로 이탈하려는 시도의 표현일지도 모르는 것이다.

33) Peter Hughes, "Restructuring Literary History: Implications for the Eighteenth Century," *New Literary History*, Vol. III, p. 271.

34) 그의 전제서, *The Age of Exuberance*의 서문에서 18세기가 이성이나 절제의 시대라고 보지 못하는 이유로서, 당시의 여러 예술에 넘치는 활력과 함께, *Mac Flecknoe*, *The Dunciad*, *A Tale of a Tub*의 악몽과 같은 성격을 들고 있다.

35) Greene은 전제서의 p. 129에서 "...it is meaningful to say that the dominant artistic idiom of Restoration and eighteenth-century Britain is essentially that of baroque and its child, the rococo."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론은 baroque라는 개념을 18세기 보다 17세기 예술에 결부시키고 있다. 가령 Odette de Mourgues, "The European Background to Baroque Sensibility," *The Pelican Guide to English Literature: from Donne to Marvell* (Vol. 3) 참조. 또한 *Dictionary of World Literary Terms* (Boston: The Writer, Inc., 1970), ed. Joseph T. Shipley는 baroque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baroque (of controversial origin). First applied to art by classicist critics of the late 18th c. to denounce the non-classical taste in which the preceding period had indulged.